

‘피겨요정’ 김연아, 한국인 첫 동메달



한국의 김연아가 5일 캐나다 빅토리아의 세이브 온 푸즈 메모리얼 센터에서 열린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인 ‘홈센스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케이트 2006’ 여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의 희망을 달성했다.

김연아는 5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의 세이브 온 푸즈(Save-on foods) 메모리얼 센터에서 계속된 2006~2007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인 ‘홈센스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케이트 2006’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105.80점을 받아 이를 전 쇼트 프로

그램에서 얻은 62.68점을 합쳐 총점 168.48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선수가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에 출전해 3위 이내에 입상한 것은 김연아가 처음이다. 더구나 주니어 무대를 평정하고 시니어 데뷔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김연아는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번 대회 1위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5위에 올랐던 캐나다의 조아니 로세트(173.86점)에게 돌아간다.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성인무대 성공적 데뷔

고, 일본의 ‘백전노장’ 수구리 후미에가 김연아보다 0.28점 높은 168.7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자신의 시니어 데뷔전에서 동메달의 좋은 성적을 거둔 김연아는 오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06~2007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지난 1차 대회 우승자인 안도 미카(일본) 및 이번 대회 우승자 로세트를 비롯해 1차 대회 준우승자인 키미 마이스너(미국) 등과 대결을 펼치게 된다.



“광주 팬들에 감사”

광주 상무 선수단이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6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끝낸 뒤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ju.co.kr

광주 2년 연속 최하위·전남 6위



광주, 대구에 0-1 패…전남, 대전과 비겨

정규리그 마감…서울, 막판 PO행 합류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시즌을 마감했다.

광주는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6 후기리그 및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27분 대구 이병근에게 결승골을 헌납, 0-1로 패했다.

광주는 이로써 올 시즌 전기리그 12위, 후기리그 14위, 통합순위 14위로 끝을 맺었다.

광주는 이날 패배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최종전을 끝으로 ‘병장 축구’를 끝낸 정경호(26·광주 상무)는 경기 후 인터뷰서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준 광주팬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년 시즌부터 울산 현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정경호는 내년 시즌부터 원 소속 팀인 울산 현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운드

를 누비게 된다.

실낱같은 플레이오프 진출의 꿈을 이어갔던 전남드래곤즈는 이날 광양전용구장에서 벌어진 대전과의 경기서 두 골씩을 주고받은 공방끝에 2-2로 비기면서 그 꿈을 접었다.

전남의 시즌 성적은 전기리그 5위, 후기리그 7위, 통합 6위.

한편 FC 서울은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날은 가을잔치 초대장의 주인이 됐다.

서울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37분 김은중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선수팀 경남 FC를 1-0으로 꺾고 전·후기 통합승점 39(9승12무5패)로 같은 시간 포항 스틸러스에 0-1로 덜미를 잡힌 울산 현대(통합승점 35)를 제치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004년 연고지를 서울로 옮긴 이후 첫 플레이오프 터줏대치다.

전·후기 우승팀을 제외한 통합순위 차상

◇전·후기리그 통합 최종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성남	49	14	7	5	42	25	17
2	포항	47	13	8	5	42	28	14
3	수원	43	11	10	5	29	22	7
4	서울	39	9	12	5	31	22	9
5	울산	35	8	11	7	21	22	-1
6	전남	34	7	13	6	28	25	3
7	대구	34	8	10	8	32	30	2
8	부산	34	9	7	10	40	42	-2
9	인천	33	7	12	7	24	27	-3
10	대전	31	7	10	9	28	32	-4
11	전북	26	5	11	10	24	34	-10
12	경남	26	7	5	14	22	35	-13
13	제주	25	5	10	11	23	30	-7
14	광주	23	5	8	13	17	29	-12

위(4위)팀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른 서울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전기 우승팀 성남 일화와 단판 승부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다룬다.

후기 우승팀 수원 삼성과 통합순위 3위 포항 스틸러스는 12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플레이오프 벌인다. 플레이오프 승자끼리 겨루는 챔피언 결정전은 오는 19일과 26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ju.co.kr

이정은·송아리 공동 3위

카리 웨л 우승…시즌 5승

오초아와 다음 공동선두

LPGA 미즈노클래스 최종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승왕과 상금왕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자 백상어’ 카리 웨(호주)은 5일 일본 미에현 시마의 가시고지마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스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준우승자 하고 가오리(일본·206타)를 4타차로 따돌린 완벽한 우승.

이번 우승으로 웨이는 시즌 5승으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함께 디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상금 랭킹도 3위에서 2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선수중에는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뛰고 있는 이정은(29)과 송아리(20·하이마트)가 2언더파 70타로 마쳐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공동3위를 차지했다.

김영(26·신세계), 이지희(27), 김조룡(22), 신현주(26·하이마트), 유선영(20) 등 5명이 5언더파 211타로 공동12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ju.co.kr

배상문 생애 첫 우승

KPGA 에마슨퍼시픽 최종

한국프로골프 2년차 배상문(20·르꼬끄골프)이 시즌 막판에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배상문은 5일 경남 남해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 골프장(파72·6천590m)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언투어 에마슨퍼시픽그룹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다.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의 추격을 2타 차로 뛰어친 배상문은 이토씨 프로 입문 2년 만에 ‘챔피언스 클럽’ 회원이 됐으며 한국프로골프의 새별로 등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ju.co.kr